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8월 2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9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위기

때마다 전화위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김 미 경 -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의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신 술과 세속적인 향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자주 다투셨고 그럴 때마다 교회가 저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무척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교회에 있으면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고 청년이 되어서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하여 회사의 문을 열고 사무실 청소를 하였습니다. 하루도 회사에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먼저 나와서 문을 열어 청소하고 또 퇴근할 때 마지막으로 문닫속을 하고 회사 문을 나서는 저를 회장이 눈여겨보시고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을 느끼며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은 제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특히 누나들이 좋아하겠다면 자기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결혼을 발표하자 회장이 무척 좋아하시고 신혼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구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것처럼 회사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결혼하여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교회를 오가며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동구역장 직분을 받아 동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할 수 없이 즐겁고 보람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활고를 겪게 되어 저도 경제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저는 점차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간신히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남편도 회사에 나가지 않는 휴일이나 휴가 때는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부쩍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여름휴가나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이 저희 부부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남편이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매우 근면하고 성실하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남편을 보고 주위에서 직장

생활만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해보라는 권유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남편 회사의 원청 기업에서 자금을 빌려주므로 남편은 그 돈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직접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사를 설립한지 26개월만에 공장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일 년이 지나지 않아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갑자기 해외 수출길이 모두 막히면서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원청 기업체들이 일시에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하청을 받아 일하는 저희 업체도 그 영향을 받아 백방으로 일감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공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래처나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쉬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 부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 주셨던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주시고 거래하는 업체나 우리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게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심령에 쌓인 하늘 양식이 어느 때부터 고갈되어 가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갈급한 심령이 되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비록 공장은 사라졌지만 남편이 능동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우리 공장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은 물론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품 제작을 시켜놓고서 납품을 하면 대금을 주지 않는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날에 장비 하나에 의지한 채 공중에서 작업하여 만든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 청구를 했는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더니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고 대금도 받지 못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애타게 일감을 찾는 우리 회사 사정을 알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과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손을 들어주셨고 것처럼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간과 여러 가지 경험을 발판으로 하여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업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업계에서 손꼽히는 철구조물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맡아 하기 어려워하는 복잡하고 힘든 일감 대부분을 저희 회사에서 도맡을 정도로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까다로운 설계도면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와 상담하고 의논할 때마다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나

남께 감사드리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갈 때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철구조물 회사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건축중이던 여러 건물의 공사가 일시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회사에 매일 출퇴근하던 6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1만 5천 명 수준으로 대폭 줄고, 회사에서 공장 증축과 신설 공사를 한꺼번에 중단하면서 모든 하청 업체들이 일시에 건잡을 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잘 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남편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건강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의기에 제가 어떻게 막거나 반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이 때에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사업장들을 잘 정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위기 때마다 지혜롭고 담대하게 잘 대처하고 처리하도록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 전화위복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 탄탄한 회사가 되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사를 운영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사업의 일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다가 ‘목 디스크’ 판정을 받고 시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상태에서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찬송가 460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잠에서 깨어난 저는 한없이 기쁘고 감격된 마음으로 다시 찬송하였습니다. “...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하는 저의 눈에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며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속적인 성공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성공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며 바람만 불어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 사랑하시는지, 이를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주님의 품 안에서 벅찬 마음으로 감사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중심으로 경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하고 이를 통해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2권 (제3단원 : 선한 이웃) (제11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 **본문** : 누가복음 10:25-37
- **요절** :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 10:36-37)
- **찬송** : 373장(새찬송가 503장), 507장(새찬송가 455장)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 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며 율법에 능통한 사람답게 조금도 주저없이 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하여 그의 질문에 적절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으며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라고 대답한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무지한 일반 백성들을 멸시하였고 죄인이나 세리들을 천대하며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이란 오직 동료 바리새인들 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며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을 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여행을 해야 할 때라도 그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야곱의 자손이었지만 앗수르의 지배 아래에서 이방인들과 혼혈되어 선민의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처지에 처한 동족을 도와줄 당연한 책임을 가진 레위인과 제사장은 동족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갔지만, 평소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해주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귀찮고 위험한 일에 끼어들기를 원치 않아 그 자리를 피해 지나간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구해주었으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에 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 곁에서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와 더 가깝게 보이겠습니까?

2.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철창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빈민국의 아동들,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자유를 빼앗긴 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로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최선을 다해 자비를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도 나의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 이상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완쾌되어 제 힘으로 기동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면 보다 많은 이웃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병자를 고쳐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일과 함께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베풀고,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는 일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또한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분부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온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